

교회 속 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식
민중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4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성탄절 설교]

크리스마스의 경이로움

(눅 2:8~14)



금주 토요일(25일) 성탄축하예배,
오전 9시(1부) 오전 11시(2부)
영양부~유치부는 자매(에베로) 드리고
유년부 이상은 1부, 2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재직들은 1부 예배 (오전 9시)에 참석하십시오.

크리스마스는 놀라운 일들이 많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놀라움, 아름다운 찬송가와 개월이 주는 놀라움, 선물을 주고받는 놀라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찾아온다는 산타클로스에 관한 놀라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크리스마스의 경이로움을 구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오늘 마음 속에 참되고 진실한 경이로움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영적인 경이로움은 잊어버리고 세상 풍습만을 좇아갑니다. 크리스마스의 경이로움이 정말 무엇인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천사들과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아름다운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천사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한 천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라에게 나타나서 그에게서 낳아줄 아이의 경이로움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름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눅 1:19). 한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30,31). 한 천사는 요셉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0-21).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천사는 천군천사와 더불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하도라 하니라”(눅 2:13,14). 천군천사의 이 찬송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이라는 표현은 새롭고 멋진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복음은 지극히 높은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눅 15:10).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이로움이 있으며, 그것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목자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눅 15,16절). 이렇게 경이로움을 느낀 사람들은 강력한 힘에 이끌려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였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움직였습니까? 혹시 예수님은 뒷전으로 하고 백화점을 찾다니지는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교만한 사람들을 간직하신 힘에 이끌려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들판에서 잠자는 양떼를 지키며 밤을 새워 목자들처럼 잠손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천사들은 기쁜 소식, 곧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놀라움도 참되고도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즉시 반응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목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소망과 열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교회당을 나서게 될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님과 함께 있기를 원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예물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를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 2:11). 이것은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참

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진리를 찾았습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동방 박사들의 고향이 어딘지, 몇 명이었는데, 또 언제 도착했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뵈고서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가난한 갓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만나고자 집을 떠나 위험한 여행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믿었기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 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지겨운 전통 때문에 예배하려고 교회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은 경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모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경이로움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선물은 영적인 경이로움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하며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이로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놀랍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경이로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힘껏 다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요집회 메시지는 4면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 2004년 은복자 및 근속자를 위한 포상이 있습니다.

*2004년도 제6차 학승세례식 - 다음주일 찬양예배 시(본지8면 참조)

◆ 특별제직회

일시: 오늘(19일) 찬양예배 후 장소: 본당

대상: 제직 전원

안건: 2004년 결산 및 2005년도 예산안 확정

◆ 성탄축하 경의의 축제

성탄의 경이로움을 찬송하는 찬양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에 총현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1. 성탄축하 찬양

교회학교 주회로 금주 화요일(27일) 저녁 7시 갤러리에서 드립니다.

2. 메시아 찬양

교·대·청 연합 찬양대·오케스트라 주회로 금주 금요일(24일)새 봄당에서 드립니다.

Sermon for Next Sunday

DO NOT GO AFTER THINGS

“... ⁽²⁸⁾So the king consulted, and made two golden calves, and he said to them, “It is too much for you to go up to Jerusalem; behold your gods, O Israel, that brought you up from the land of Egypt.” ⁽²⁹⁾And he set one in Bethel, and the other he put in Dan. ... ⁽³¹⁾And he made houses on high places, and made priests from among all the people who were not of the sons of Levi. ⁽³²⁾And Jeroboam instituted a feast in the eighth month on the fifteenth day of the month, like the feast which is in Judah, and he went up to the altar; thus he did in Bethel, sacrificing to the calves which he had made. And he stationed in Bethel the priests of the high places which he had made... .”
(1 Kings 12:25-33)

Today's Bible verses talk about Jeroboam. Jeroboam was one of two kings that ruled God's divided kingdom after Solomon. When Solomon died, God's people separated into two nations-Israel and Judah. Jeroboam reigned over the ten tribes of Israel, while Solomon's son, Rehoboam, reigned over Judah. The history leading to Jeroboam's kingship is important. You may recall that the first king of Israel, Saul, sinned against God, so God gave his kingdom to David. He was only a poor shepherd, not really experienced in people leadership, but God qualified him. David and all his children fell into great troubles because of Bathsheba, yet God put Bathsheba's son, Solomon, upon the throne. God bestowed Solomon with the highest of human wisdom, and he built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Solomon was the wisest, wealthiest, and most powerful king. He had God's blessing, but through disobedience pursued other things. 1 Kings 11:1-10 tells us that he had a thousand wives, many from foreign nations that God asked his people not to be associated with. As he grew older, their influence turned his heart away from God and toward other gods, like the detestable Ashtoreth, Milcom, Chemosh, and Molech. God appeared to Solomon twice concerning this matter(11:9), but he did not listen. Therefore, God tore the majority of his kingdom from Solomon's son, Rehoboam, and gave it to his servant, Jeroboam.

Jeroboam, Solomon's servant, rebelled against Solomon (11:26), and God promised him, through his prophet Ahijah, that He would make him king over ten of Israel's tribes. Soon after he became king, he said in his heart, “Now the kingdom will return to the house of David”(v. 26). Here was his first crucial mistake. He began listening to what his heart said, and not what God said. The human heart always makes its own religion. Jeroboam's foundational thinking was coming from his heart. If you look at this world, you will see that there are really only two kinds of religions. Their origins come from “I think” and “I will”. Whenever God speaks, the proper response is “I will”, not “I think”. “I think” is not from God. I think is human. “I will” is godly. Sadly, many people use God's name while practicing “I think”. They decorate it and make it appear reasonable. God declares,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Is. 55:8). Jeremiah 17:9 says, “The heart is more deceitful than all else and is desperately sick; who can understand it?” Many of today's churches are making radical changes hoping to attract younger generations. Their foundation for transformation is largely coming from human hearts, not God's word. Proverbs 16:25 clearly mentions, “There is a way which seems right to a man, but its end is the way of death.”

Jeroboam began making changes among God's people based upon what his heart thought was good. He placed two golden calves in strategic regions, so that Israel no longer had to travel to Jerusalem to worship. These changes were selfish. For he thought that if Israel went to Jerusalem, as required, then their hearts might change and want to reconcile with Judah, thus resulting in his death(v. 27). He did not want Israel to return to their Lord, but rather to his Lord. Fear motivated his heart. Whenever you start thinking, you begin to worry and become afraid. That is why people make defenses for their personal honor and

welfare. The self is always the center of all godless religion. Christ is the center of true religion. The pride of life lies at the root of all human desire. 1 John 2:15-16 tells us,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ld.” Thinking from the heart relates to the world, not God. Romans 10:3-4 reminds us, “For not knowing about God's righteousness and seeking to establish their own, they did not subject themselves to the righteousness of God. For God is the end of the law for righteousness to everyone who believes.”

After Jeroboam changed the place of worship, he told God's people that he did it for them. He lied to hide his fear. His changes were contrary to the word of God, and he thought them beneficial to himself. He told the people to worship by the calves because it was too far and too much trouble for them to travel to Jerusalem. His lies made all the people happy. They loved not having to go all the way to Jerusalem. Their pride and the ease of comfort deceived them. Psalm 106:20 says, “Thus they exchanged their glory for the image of an ox that cats grass.” But this was not the only change Jeroboam made. He made priests from among all the people, not the Levites who God charged to carry forth His worship practices (v. 31). This pleased many, and so he became popular and powerful. Therefore, he also changed the date of the feast of Booths. God ordained it to be held on July 15, but the fruits in his region did not ripen until August 15. Again, this change made sense and really pleased the people.

Altogether, Jeroboam made three worship changes. He knew the culture, custom, and environment of the Israelites. He understood people's feelings. He sympathized with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troubles. Thus, everybody was able to understand his changes and go along with them. Today is the last Sunday of 2004. In our church there are many who want to make changes in the style of worship and go the easy way. They want to participate in worship, but not the hard way, like the Bible. They reason that this is the 21st century, and God can understand the need for change. Truthfully, it makes sense. Paul did it, “I thought to myself that I had to do many things hostile to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Acts 26:9). He thought it and did it, but 1 Corinthians 2:2 also tells us, “For I determined to know nothing among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Amen.

My dear friends, please honestly and humbly kneel down to the cross and get rid of all your thoughts, and let your heart come back to the Son of God who died for you. He asks you to repent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near.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receive eternal life. Please accept the grace and mercy of God, and do not go after other things. Become a child of the Creator, not a child of humans. Many people start-off listening to God, but end up thinking for themselves and following their own thoughts, not God's thoughts. Please deny your thoughts, so that you will not go after other things. God bless you. 🙏

다음주일 설교

세상 것들을 좇지 말라

“...²⁸ 이에 계획하고 두 금슬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²⁹ 하나는 뱀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³¹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³² 팔월 곧 그 달 십오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뱀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뱀엘에서 세웠더라 ...”(왕상 12:25-33)



김성필 목사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분열된 왕국을 다스렸던 두 명의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열 지파를 다스렸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력을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자녀들은 밧새바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밧새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가장 높은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며 강력한 임금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0절에 보면, 그에게는 천 명의 왕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왕비들은 하나님께서 교류하지 말고 금하신 이방 나라 출신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니, 헬소몬은 아스다돗과 그소스와 물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11:9).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 물려주지 않았고 열 지파를 뚫 떼어서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들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반역하였고(11:26).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아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으로 세우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스스로 말했습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12:26). 바로 여기에 그의 첫 번째 지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의 우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그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올바른 반응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입니다. “내 생각은요”가 결코 아닙니다. “내 생각은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변태한 풀을 날 뿐입니다. 반면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듯하게 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원을 믿어보십시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사 55:8).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합니다. “관목보다 거짓되고 심히 교활한 것은 마음이라 자기 능히 일을 알리요 마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급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계산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잠언 16장 25절은 명화하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평결은 사방의 길이나.”

금슬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당한 지역에 금슬아지 두 마리를 세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자주 내려가서 보람을 얻고 유다와와 통일을 원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이다(27절). 그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일단

뭔가 걱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명예와 복지를 방어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경건지 못한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항상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된 종교의 중심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의 뿌리는 삶에 대한 만족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16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자기의 마음을 따라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합니다. 로마서 10장 3-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올림의 마침이 되시니라.”

새로운 변화 그러나!

여로보암은 경배의 장소를 제멋대로 바꾸어놓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두려움 마음을 감추려고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너무 멀고 그곳까지 여행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들므로 자기가 세울려는 금슬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 했습니다. 그들도 먼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경배하는 일이 내심 불만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과 편리함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20절은 말합니다. “자기 영광을 폭 멀려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로보암이 바꾸어 놓은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레위 자파 사람들을 제쳐두고 다른 지파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31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했고,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강력한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막절 절기의 날에도 바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짜는 7월 15일인데, 여로보암이 사는 지역에서는 8월 15일이 되어야 할데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8월 15일로 초막절 날짜를 바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크게 환영하였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말씀 앞에

절국 여로보암은 예배와 관련하여 세 가지 변화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문화, 관습, 그리고 환경을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잘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처한 정세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에 민감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찬성했던 것입니다. 다음주일은 200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들을 바꾸고 좀 더 쉬운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과는 달리 좀 더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은 21세기이니 예배를 조금 바꿔도 하나님께서 알아들 이해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생각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법사를 행하여져 줄 줄 스스로 생각하노”(행 26:9).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다름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아멘.

사실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무엇을 필요시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헌납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라 창조주의 자녀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만 따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않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고 오묘한 그 말씀 (금요일) - 천국 복음

제9장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인가? (3)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두 번재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복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이복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인류 역사의 목적과 그 의미를 확인하여 주는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인류역사와 관련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왜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일까? 인류 역사의 종국적인 의미는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되고 해석된 성경 속에 있는 바 인간 역사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역사는 영원 속에서 이리 저리 말리는 파도처럼 파도에 찢겼다 다시 돌아오는 모래 같은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안에서 구국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의 신령한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그의 신령한 목적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도 말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향하여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분명히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다 나타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고 있다. 온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버림받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온 인류를 포함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보잘 것 없이 미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다. 애굽, 아시리아, 갈대아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다른 여러 나라들의 궁극적인 의미도 이 작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를 세우시고 또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고 또 그 계획을 역사 안에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구원의 역사 혹은 구국의 역사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나타나셨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 졌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우선적으로 성취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그의 구국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에 역사 속에 있는 거룩한(신성한) 목적이 이스라엘, 곧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로부터 교회로 옮겨진 것이다. 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례인과 이방인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복성이 받으리라"(마 21:43).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벧 전 2:9)이다. 이것이 모든 현재 교회의 사명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들고 나간다고 해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국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영육으로 재림하신 날까지, 이 세 사건 사이에 있는 역사의 종국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

리라"(마 24:14).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 역사의 책을 본다면 아마도 거기에는 사랑, 동양사 또는 문화인류학 같은 서적은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구국의 목적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만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신령한 목적을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책임을 우리 같은 사람들, 곧 구국 받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목적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지도 모를 그 큰 위험을 각오하고 계셨을까? 그런데 벌써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아직도 그 목적은 성취되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목적을 이루시지 않으실까? 왜 그 목적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천군천사들은 보내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해방이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중대한 일을 맡기셨단 말인가?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른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며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을 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천국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교회들에 의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 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회가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세상의 한 나라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영원을 생각해 볼 때에 교회의 사명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세상의 권력자들의 결정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류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완성되는 것은 교회와 사명 완성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만할 교회의 사명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이 사역은 인간들이 행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있으며 뜻이 있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의미가 있으며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은 약속하신대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음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젊은 율리안 케리가 처음 복음을 들고 인도에 가고자 할 때에 그는 충고를 받았다. "젊은이여 그만 두라.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복음화 시키려면 자네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인도를 향하였다. 바로 그가 세계선교를 시작한 선구자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역, 곧 세계 선교를 계속해서 끝까지 이루어 나간 것을 맡겨 주셨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사역의 끝없는 날에 가까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흥분할지 않을 수 없다. 사도시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세계선교에 임하고 있다. 현대 과학문명은 이 세계선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인쇄, 자동차, 라디오, TV, 인터넷 등등은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을 돕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자비를 박하고 일어나 세계 구석구석으로 달려가자.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수요일예배 메시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사 9:6)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 그러나 한계가 없고 제한적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오직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영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영원한 창조주가 성육신 하여 우리에게 격음이 되어질 수 있는가? 죄악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할 한다.

영존하신 분이 시간공간으로 들어오셨다.

"베들레헬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처음에는 이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다. 가장 작은 베들레헬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나뭇을 통해 드러난 베들레헬은 가장 비천하고 조롱받고 천한 곳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담을 만나주셨고 인도하셨다(창 3:14-15). 그리고 다윗도 그곳에서 태어났고 기름부음을 받았다(삼상 16:10-13). "뒤에는 자들이 이로로 올라 주 예수 앞에 오라"(산 318장).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들레헬은 영존하시는 하나님님이 나오실 공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 성경은 말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마 1:1).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다. 이를 깨달으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 있다. 조금 보이는 것에만 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찾아왔다. 베들레헬의 의미는 "떡집"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떡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세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사 9:2).

영존하신 분이 시간 공간을 만드셨고 오셨다.

영존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시공간 속으로 성육신하셨다. 성육신은 기적과 창조역사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골 2:6,7) 바로 이 모든 것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분이셨고 우리에게는 영원이 그분을 향해 열려야 한다. 주님은 시공간 안에 계시지만 자라고 시간의 법을 따랐다.(누 2:5,7,52)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처럼 절정하게 계획하신대로 때를 맞추신 분은 없다. 진실로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를 속삭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오셨다. 영존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축복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 정말로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내려졌다. "너희가 아들인고로..."(갈 4:6). 그리고 우리 일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 영존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속에 살아있을 때 온유가 되었다. 겸손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간절하게 기도하자(히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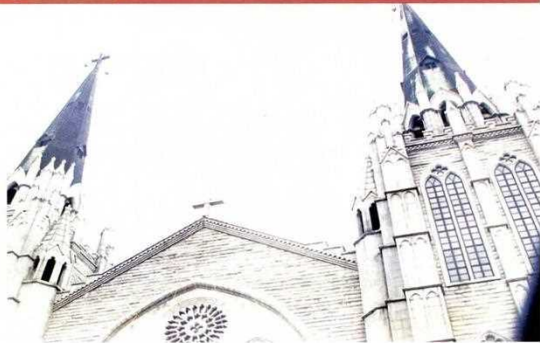
영존하신 그리스도는 영원을 제공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존하신 하나님이 시공간 안에 오셨다(요 3:16). 그러므로 우리는 영존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 "사실성과 같은 교회, 반식 위에 세운 교회, 모든 원수 애원까지 아무 근심 없ed다. 생명의이 흘러나와,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같은 값으로,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다"(사 24:5장). 주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소서.

장로칼럼

2005년의 총현교회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노정현 (전로, 당회서기)



여호수아서 마지막장인 24장은 감동적인 장면이 나온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마치 그들 전부와 대항이라듯이 선언하는 장면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다소 비장한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수 24:14-28).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갈수록 우리가 여호와와 같이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혼동을 보고 이를 바로 고쳐 잡는 것이 사회 책임이라는 명분 하에 목사가 일어나고, 목사와 장로의 대표들이 모인 총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갈수록 변질된 기독교, 유교, 불교, 바알 등 십자가가 없는 혼합종교 문화가 관을 치고 배교적인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교회는 눈앞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추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니라"(눅 18:8)하시던 주님의 음성어 켜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때가 되었다.

우리 교회에 김성관 목사님이 오신 후 목사님 자신과 우리 교회는 가급적 외부와 관계를 맺지 않기로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기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저 묵묵히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고 그것을 품고 마를 달려왔다.

그동안에 해 온 일들은 우리 교회 성도만이 알 수 있는 일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의 관행과 문화 가운데서 말씀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는 일들은(전신으로 이런 일을 개척하고 부를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교회 강단에서는 매 시간마다 복음이 외쳐지지만 교회밖만 나가면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의식과 행동으로 살고 있기에 우리는 참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와 살아가기 무척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한 길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선령한 예배를 위하여 설교자는 물론 사회자와 기도자를 1개월 전에 공직하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찬양대에서는 그 날 본문에 맞추어 찬양을 준비하며, 예배안내위원 및 헌금위원들도 사전에 연수와 교육을 통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예배수종자와 진행자들이 예배 진행의 모든 일들을 미리 미리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행하는 것과 전 교인이 예배 15분 전에 와서 예배 전 찬양(복음성가 찬배배제) 시간에 참석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천국일꾼 양성을 위하여 교회학교에 전일교역자 제도를 도입하고 한 부서에 5년 이상 된 교사를 교체하여 새롭게 하였다. 주일 성경공부 교재를 직접 집필, 제작, 교육하고 복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성적보다는 주님을 섬기는 헌신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이제 교회의 젊은이들이 주일 봉사를 위하여 토요일 집회를 갖기로 하였다.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는 그동안 이웃교회의 물질적, 인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간접 전도를 모두 정리하고(이 일은 너무나 힘들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했다) 이제 126개 교회로 앞장서서 교회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전도하는 직접전도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모든 선교를 단기선교 체제로 바꾸고 수많은 비단과 조봉, 비웃음,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비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와 평생단기 선교사, 현지인 선교사를 통한 전도와 양육을 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웃 사랑을 위하여 최소한 우리 교인 중에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 하에서 현물로 실시하는 구제와 이른바 하는 일을 원인으로 모르게 하라(마 6:3)는 말씀과 같이 국가적인 재난에 앞장서 달려가 채난 당한 현상에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구제 활동 등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5대 목표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게 되었다. 이전의 행사 위주, 전신위주, 사회 켜기 위주와 아닌 직접 몸으로 무엇이고 만나서 행하는 일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5대 목표의 현장에 나가 앞장서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교회의 변화를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변화 현장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 허례허식과 필요치 않는 일에 관행으로 지출하는 일 등을 없애고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온 결과 이제 예산 집행의 문제도 바른 가늠을 잡아가고 있으며, 직분자들의 철저한 공직적 참석과 바른 헌금생활, 교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들과 행동들을 배제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었다.

이제 그러기를 7년을 넘겼다. 이제 앞장서서 교회일을 하는 사람들도 어느정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길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새해를 맞게 되었다. 위임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행정은 장로님들이 하고 나는 말씀만 전하게 해 주세요"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 총현교회는 세계교회에서 드물게 장로들이 행정을 전담하고 교역자들이 말씀과 목양에만 전념하는 초대교회적인 실현을 하게 되었다.

교회행정이란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 전리의 실행을 위하여 교회에 감당할 부분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들이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지원하고 상호 협조하고 조정해 나가는 일을 말한다. 그러기에 목회와 교회행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처럼 교회행정은 일반행정과 달라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좇아 사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하기에 그 실천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교회행정을 교역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교회도 교회행정을 장로들이 전담하기 위하여 7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강단을 통해 증거되어진 복음이 교회의 5대 목표 아래서 17개 실행위원회 안에 구체적인 열매들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앞장선 각 위원회 위원장과 실행위원·장로·안수집사·전사 그리고 모든 위원들은 5대 목표가 보다 온전히 세워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아래 엎드리며 순종해야 한다.

장로들이 교회 행정을 전담하게 되고 필자가 그 앞에 서게 되면서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교회행정을 바르게 해 나가기 위하여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리더십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고,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합당한 조직과 운영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7년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상황이 없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가 그러함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왔음을 볼 때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대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의 죄인 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매사 매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 자신을 십자가 밑에 못 박고 주님의 은사를 구하는 일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님의 빛 안에서 당회원과 모든 직분자들과 온 교인들이 피차 사랑하고 인내하며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진리만 실행되는 강단과 바른 교회행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웃에 세워주신 그 뜻을 밝히 깨닫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아주 단순해지고 명확해졌다.

새해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여권을 허락하시는 한, 매 강단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가운데 총현의 모든 성구들이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마 16:24), 주께서 허락하심을 따라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구제에 직접적으로 몸과 마음을 드려 참여케 하는 것, 그것이 2005년의 우리 총현교회라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이 복음의 대열에 발맞추어 나가기를 바라마...

교회탐방 46 충현동산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민은 자들의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죽음 이기에 이별의 슬픔을 넘겨주고 떠나자. 그 슬픔을 간직하고 이 땅을 사는 자가 맡게 되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충현동산은 죽은 자들이 묻힌 땅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의 장소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이런 개념에서 충현동산은 공원화시킬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현동산은 서울에서 가까운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 중에 위치해 있어 공기 또한 좋아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충현동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동산부장인 김중구 장로님을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충현동산’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해가 묻힌 곳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를 어떻게 공원화시킬 계획이신지요?

“민지 않은 자들의 죽음은 슬픔인 동시에 죽은 자들의 유해를 잘 모아서 무수들의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지 않은 사람들은 무덤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을 자리를 미리 찾기도 합니다. 또한 무수들은 죽은 자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에 화려한 장식도 하고 각종 묘비를 세워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여 무덤에 대한 소위 의식도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타인의 무덤은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일반인의 죽음을 다르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는 죽음입니다. 참시 그 영이 잠든 것뿐이지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인들의 빈자리가 가슴에 남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다시 만날 날을 꿈꿀 수 있기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공원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충현동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말씀해주세요?

“우선 기존 무덤의 분봉들을 평토장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개인 묘지의 장식들을 자체시키는 대신 동산 전체의 조경에 비중을 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묘지를 장식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돌화병이나 회양목, 초화 등을 치



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묘지를 장식을 중시하다 보면 전체적인 조경을 매칭합니다. 각 개인들이 가져다 놓은 장식들은 처음에는 보기에도 좋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 개인들의 관리가 소홀해져 오이러 보기 싫은 용물이 됩니다. 또한 개인이 가져다 심은 회양목으로 인해 주변의 잔디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충현동산 전체의 조경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하여 고인의 추억이며 심을 얻는 공간으로 변화시켰으면 합니다. 현재 관리동 1층에는 만남의 장소나 기도회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준비되어 있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충현동산에 기초생활 시설과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수련회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 현재 내부도로의 포장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해나간다고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실 말씀은?

“처히가 일을 원만하게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들의 협조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충현동산은 재단법인으로 교회와는 별도의 재단입니다. 그러나 영리목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에 성도들도 이 점을 많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산을 관리하는데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개인들이 가진 이해나 생각 때문에 거칠게 항의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생각하셔서 자체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추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다시대 성령이 가로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계 14:13).

(편집실)

▲ 묘지를 장식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돌화병이나 회양목, 초화 등을 치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음 주일 찬송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송은 헨리 레이크 길모어(Henry Lake Gilmour) 작사에 조지 무어(George D. Moore) 작곡으로 되어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번역자 윌리엄 스왈런(William L. Swallen) 박사의 찬송사학이 힘이 타당하다. 번역자 스왈런 박사는 우리나라에 온 초대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이 찬송을 우리 신자들이 정서에 맞게 잘 번역하였다.

- 1절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의 향구인 그리스도의 몸을 찾지 못하고 세상 죄의 바다 위에서 해매는 인생의 모습을 노래하며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노래한다.
- 2절은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곤고함과 평안함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인애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노래한다.
- 3절은 우리들은 죄 아래 죽을 인생들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참된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찬양한다.
- 후렴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임을 찬양한다.

이 찬송은 거칠고 험악한 삶을 살았던 작사자 자신의 생애를 바다의 생활과 거친 바다를 소재로 하여 찬양한 것이다.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항해와 같다.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고난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2004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2005년에도 하나님이 율행하시는 우리 인생의 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923	김광규	19	고동부	김만우(하)	2942	지용만	7	예비대부	박석순(7)
2924	김진중	1	청년3부	차신득(하)	2943	장여진	9	청년2부	유진(하)
2925	방정애	1	청년2부	이승준(하)	2944	김재형	19	대북부	유리순(15)
2926	이창배	9	청년2부	이준성(하)	2945	최드오로	19	외선부	태갈라(하)(12)
2927	백지은	19	종동3부	이은미(하)	2946	황태하	19	외선부	지아연(11)
2928	정주희	19	종동3부	문정민(하)	2947	반두	19	외선부	정혜지(하)
2929	정지	19	청년1부		2948	이동운	19	외선부	정종훈(하)
2930	표해원	8	청년2부	박영순(하)	2949	황신	19	외선부	박재민(하)
2931	이영은	4	청년2부	박영순(하)	2950	김성명	16	청년2부	윤수일(하)
2932	주미	11	청년1부	유옥재(하)	2951	문혜정	19	청년1부	권형일(하)
2933	이강진	19	청년1부	유창근(하)	2952	김정서	19	청년1부	신형현(하)
2934	고현후	19	고동부	정진준(하)	2953	김리교	19	외선부	
2935	조진석	18	청년2부	김용숙(하)	2954	배미자	1	외선부	
2936	최정수	14	청년2부	이진규(하)	2955	이진희	1	청년2부	
2937	김래	19	외선부	심재현(하)	2956	강보배	19	대북부	강현우(19)
2938	오교로	19	외선부	김기복(하)	2957	최태복	19	청년1부	정민(하)
2939	정광훈	19	외선부	김진국(하)	2958	이윤	19	청년1부	
2940	박정호	16	청년2부	조인환(하)	2959	박은정	19	청년1부	김승재(하)
2941	구지현	19	청년2부	김원환(하)	2960	유원현	6	청년3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모임

1. 신학교 총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강일리움
2. 신자전반 교육
일시 : 22일(수)
수료1부
예배 후
장소 : 강일리움

◆ 지하주차장 개방 안내

1. 주말예배 (본당 지하 1~2층 / 제2교육관 지하 1~4층)
어는 시간 06:30, 닫는 시간 19:00
2. 수요일예배 (본당 지하 1층) 어는 시간 10:00, 닫는 시간 13:00
3. 금요일예배 (본당 지하 1~2층) 어는 시간 17:00, 닫는 시간 22:00

◆ 2005년 선교계획 및 교회전반 전도계획 설명회

1. 일시 : 2004년 12월 26일(다들주일) 16:00
2. 장소 : 강일리움
3. 대상 : 안수집사, 권사, 2005년 선교교회자

◆ 전도의 가정

- 전도위원회에서 2004년도 하반기 회계장서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강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 2005년 1월 2일 ~ 2005년 1월 3일
 2. 대상기간 : 2004년 7월 ~ 12월
 3. 감사대상 : 전도위원회 (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 사진포 2장(2004년 12월, 금주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 새가족양육부

집회시간 및 장소 변경

오늘(19일)부터 새가족양육부 집회시간이 주일상 12시 15분부터 1시 40분까지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전도의 베다니홀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6차 학습세례사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교수	세례사,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사	장소
12월 19일 (오늘)	1교시 15:00~15:50 2교시 16:00~16:40	기독교개요 (입학전 복사) 문답	교육관 309호 교구별 장소	세례관? (하종철 목사) 문답	교육관 304호 교구별 장소	유아세례관? (안지현 목사)	301호
12월 26일 (다음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사(지배 찬양대, 본당)	유아 세례관? (오후 3시, 강일리움)	오후 3시 30분까지 집합함		

이번 주 새벽기도의 답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주일)
설교/기도지	김성관/김단우	이종대/노태경	정현민/현승조	류병희/임재봉	미국근/이인원	김교성/김정원	양재호/조옥자

예배 담당안내 (12/22~12/26)

날짜	예배	찬양	사회	기도	설교
12/22 수요일	수요일	온 세상이 되자(호산나 찬양대)	김용국	김정호	마리아의 찬송 (14:50) 김성관 목사
12/22 수요일	수요일	개미와 연등이 든다(실로암 찬양대)	윤수원	전경훈	시몬의 찬송 (2:38-32) 최홍철 목사
12/24 금요일	본당의 베다니/고대성 연합찬양대, 오케스트라	고광환			예수 단절의 의미 (21:4) 류병희 목사
12/25 성탄1	성탄1	강용덕	강용덕	강용덕	크리스마스의 감미로운 (2:28-30) 김성관 목사
12/25 성탄2	성탄2	류병희	류병희	류병희	크리스마스의 감미로운 (2:28-30) 김성관 목사
12/26 주일 I	주일 I	이재영	이재영	이재영	세상 것들을 좇지 말라 (왕상 12:25-33) 윤수원 목사
12/26 주일 II	주일 II	지극하게 자라는 것의 소프라노 김소연(전일목장자)	임원익	배기근	세상 것들을 좇지 말라 (왕상 12:25-33) 강용덕 목사
12/26 주일 III	주일 III	지극하게 자라는 것의 소프라노 김소연(전일목장자)	정현민	오진국	세상 것들을 좇지 말라 (왕상 12:25-33) 김성관 목사
12/26 주일 IV	주일 IV	시온성가 같은 교회와 함께(오케스트라)	정종신	안동현	세상 것들을 좇지 말라 (왕상 12:25-33) 미국근 목사
12/26 주일 V	주일 V	기쁘게 구주 오신대 의 행렬(오케스트라)	안지현	배기근	세상 것들을 좇지 말라 (왕상 12:25-33) 양재호 목사
12/26 주일양향	주일양향	찬양도움찬양대(이종대 찬양대)	김익관	김관기	말씀의 자비의 사역 (21:4) 김성관 목사

12월 헌헌 기도의 향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며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영원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예배 때마다 대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헌헌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복음을 확신하며 그 복음을 자랑하게 하소서.
3. 2005년도 단기선교와 CMTC훈련 및 언어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4. 헌헌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5. 헌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6. 모든 세계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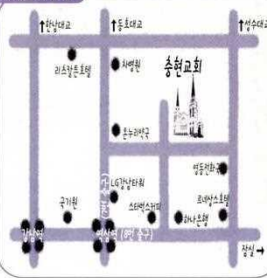
별 세

1. 헌신은 은복권사
8교구 4등구역 / 13일 별세, 15일 장례
2. 별안간 집사 민병
한 권사의 남편,
박성환 성도의 부
친, 장제성 성도의
사부, 16교구 수원
1구역 / 14일 별
세, 16일 장례

결 혼

1. 최광락 군(나송신
경사의 아들, 15교
구) 김경희 양 (장
영복 목사, 장영
신 씨의 딸) / 25일
(토) 12:30 정현민
목사(2층 신대
림의 4번 출구)
☎ 02-844-7788
2. 지윤호 씨(서정
의 아들, 김필은
의 딸) / 25일 (토)
15:00 이종대 목사
3. 최성준 군(정철
집사, 김경희 권사
의 아들, 8교구)와
권영민 양(전일목
장자, 유영복 권사
의 딸, 2층 금리
교회) / 25일
(토) 15:00 성도들
수령중앙의 강당

교회 소식은 길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박기원 류병희 김영훈
미국근 김교성 안창덕 나영원 정진호
김용국 고광환 권위관 정현환 장 훈
임원익 이희식 최홍철 최홍철 안지현
정종신 양재호 이성진 조근우 최기근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윤수원
황정식 정성영

■ 여전도사

- 정현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희
홍순애 이옥주 김경자 안대현 김경연
조옥자 장덕필 최진선 전은희 김영순
김경자 이수경 김경희 이복순 류진희
한성림

■ 찬양감독 김성준

■ 찬양감독자 김연성

■ 찬양감독자 최효영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수, 목, 목요일 동시행 예배)	본 당
V	오전 1:00(목요일 동시행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전 5:00	본 당
수요일예배	1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예배	오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 간	장 소
회오리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10:30	본당 앞 출구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신교관 1층	청 년 2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청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 소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청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유 년 부	오전 10:50	교육관 307호	청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초 소 부	오전 10:50	교육관 407호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호
소 년 부	오전 10:50	교육관 507호	예배다부	오전 9:00(학강)	교육관 207호
중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학 아 부	오전 9:00(오전 2:00)	교육관 110호
중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세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홀
중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출현어린이양육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출현 복지관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국내외국인교부	오전 11:00	아 벨 홀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대한, 중국어, 영어, 히브리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동티모어 등 다양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t Self-Learning,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